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소*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대학 마닐라는 마닐라에 위치해 있으며 수빅은 마닐라에서 3~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닐라를 방문하여 필리핀 대학 마닐라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위험지역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안전했다.
수업	처음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보고 반을 나누었다. 성적을 통해 반을 분반해 주어서 좋았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으로 선생님들이 넣어주셔서 수업시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룹수업은 하루에 5시간으로 진행되고 1:1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되어 하루에 총 8시간의 수업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듣다보니 확실히 영어 듣기부분이 향상된 것을 느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문장 읽기를 통해 발음 교정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1:1수업도 참엔 걱정했지만 막상 닥쳐서 얘기해보니 재밌었다. 전반적으로 수업방식과 선생님들에게 만족한다. 이해가 안되서 계속 물어봐도 선생님들이 짜증내지 않으시고 잘 가르쳐 주셨다.
Activity	필리핀 대학 마닐라에가서 필리핀 대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었고 300페소씩 걷어 고아원에 방문하였다.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한 고아원을 필리핀에가서 경험해서 더 의미있었다. 필리핀에서 회원제로 가는 리조트도 방문했다. 비치와 리조트 풍경이 너무 이뻐다. 바다와 별개로 수영장도 있어서 더 좋았다. 마지막으로 요트투어를 하였다. 다같이 수영을 하니 너무 재밌었다. 그러나 구멍조끼가 너무 크고 얇아서 불편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리나라 여름보다는 덜 덥고 가을보다는 덥다. 반팔입고 다니기 적당한 날씨이다. 가끔 비가 오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디건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전	생각했던것 보다 안전했고 쇼핑물이나 큰 건물의 경우 경찰이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마음놓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므로 쇼핑물을 돌아다닐때는 크로스백보다는 힙색이 더 안전한것 같다.
숙소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잘 해주셔서 기숙사에서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치만 벌레가 자주 나와서 무섭다. 평일 10시라는 통금시간도 있어서 좋았다. 너무 풀어주면 나태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식사	아침과 점심은 주로 학원 식당에서 먹었다. 아침은 주로 빵이 나오고 점심과 저녁은 한국식 밥이 나온다. 침에는 쌀이 한국과 달라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다보니 맛있었다. 주방장님이 한국요리를 정말 잘하신다.
교통	학원앞에서 FB를 타면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으며 교통비도 싸다. 외부로 돌아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페소 환전	400.000	필리핀 돈으로 환전
합계	1,135,4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외국인 선생님과 이야기하는데 영어단어를 몰라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필리핀 가면 따로 수업 교재를 주기 때문에 영어단어장이외의 다른 책들을 안가지고 가도 될것 같다. 필리핀은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아서 모기퇴치제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무실가서 비상약을 주기는 하지만 따로 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여서 걱정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생활하다보니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았고 큰 건물의 경우 경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에는 여자들끼리 돌아다니지 않고 남자들과 섞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내가 해낼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시간에는 무슨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귀가 열리듯이 하나둘 영어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4주동안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주 동안 확실히 듣기 실력은 향상되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액티비티를 통해 필리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서 더 의미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 온지 몇 일 안됐지만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필리핀 생활이 그리워졌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FB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p>	<p>필리핀 대학 마닐라에 다니는 친구와 대학교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p>
	
<p>요트타기 전에 찍은 사진</p>	<p>호텔의 옥상에서 찍은 사진</p>
	
<p>고아원에서 찍은 사진</p>	<p>리조트에서 찍은 사진</p>